



배포일시	2017.8.8.(화) 08:00	보도시점	2017.8.9.(수) 조간부터 [온라인매체는 8.8.(화) 12:00 부터]
담당과장	119구급과장 윤상기	연락처	044-205-7630
담당	소방위 김미선	연락처	044-205-7633
쪽수/붙임	3쪽 / 있음	대변인실	044-205-7016

119구급신고 이렇게 하세요

- 꼭 알아야할 '119구급서비스 이용 상식' 6편 제작 -

<구급서비스 이용에 대한 문제 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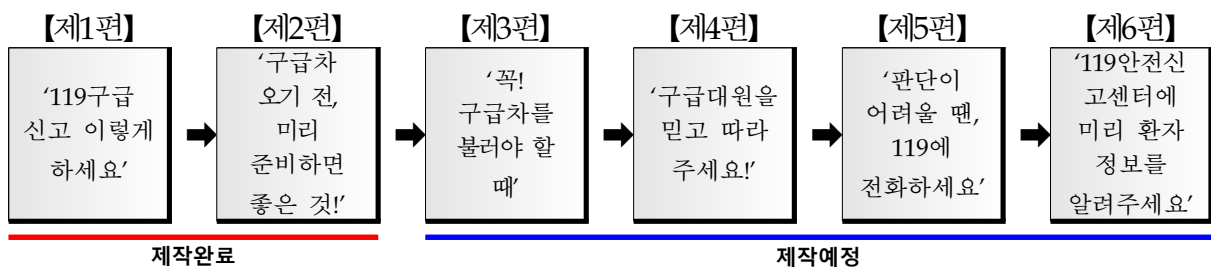
- ◆ 사례 1 : 2016년 7월 서울의 A동 주택에 살고 있는 C씨는 거실에서 쓰러진 후 호흡이 없는 아버지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다. 신고 후 C씨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지도해 주겠다는 119대원에게 “신고를 했으면 빨리 119구급차나 보낼 것이지 무슨 말이 많아!”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후 엄마와 다른 가족들에게 상황을 알리는 통화를 하면서 119구급차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119에 신고할 때 집 주소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구급대원이 여러 차례 신고자에게 환자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전화를 시도하였지만 C씨가 계속 통화중이었기 때문에 연결되지 못하였다. 119센터에서 현장까지는 4km의 거리였지만 구급대는 12분이 지난 후 도착할 수 있었다. 심정지 상태가 되면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하는데, C씨는 현장에서 아무런 응급처치도 하지 않았다. 구급대가 도착해서 심폐소생술을 했고 병원으로 이송하였지만 C씨의 아버지는 사망하였다.
- ◆ 사례 2 : 2016년 1월 충북 A식당에서 B씨가 갈비를 먹다가 목에 걸려 숨을 쉬지 못하는 것을 식당주인 C씨가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다. 신고 후 C씨는 기도 폐쇄 응급처치 방법을 안내해 주겠다는 119대원에게 “그렇게 말만하지 말고 빨리 와서 환자를 데리고 가야될 것 아니냐?”라며 화를 내고 전화를 끊었다.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B씨의 목에 걸린 갈비를 뺀 후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으로 이송하였지만 B씨는 뇌사상태가 되었다.
- ◆ 사례 3 : 2016년 4월 전남 ○○시 주택에 살고 있는 A씨는 남편인 B씨가 아침부터 오후까지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 잠만 자고 있어 119에 신고하였다. 평소에 남편이 혈압이 높고 당뇨가 있어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의학 상식이 없었던 A씨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줄을 몰라 고민을 하다가 시간을 낭비했고, 119구급대가 도착 한 후에도 옷과 돈 등을 챙겨야 한다며 병원으로 이송되는 시간을 지연시켰다. 병원으로 이송하였지만 B씨는 뇌손상이 진행되어 좌측팔과 다리가 마비되고 언어장애를 갖게 되었다.

-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이 꼭 알아야 할 「119 구급서비스 이용 상식」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119구급서비스는 연간 320여만명*의 국민이 이용하지만 응급상황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이용 상식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이에 소방청은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119구급서비스 이용 상식」을 카드뉴스, 팸플릿 등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 119구급서비스 이용 현황 >

- ▶ 119구급대에 의한 응급환자 이송 179만명(1일 평균 4,912명 이송)
 - 심정지환자 54,184명 발생, 현장에서 목격자가 18,560명(34%) 심폐소생술 시행
- ▶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지도·상담 141만명
 - 병원·약국 상담 75만명, 질병상담 15만명, 응급처치 39만명, 의료지도 8만명 등

- 「119구급서비스 이용 상식」은 ▲119구급신고 이렇게 하세요! ▲119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것! ▲119구급차를 불러야 하는 증상 ▲구급대원을 믿고 따라 주세요! ▲판단이 어려울 땐, 119에 전화하세요 ▲119안전센터에 환자정보를 미리 알려주세요 등 6편이다.





- 제1편 ‘119구급신고 이렇게 하세요!’ 는 ▲환자가 있다는 것 알

려주기 ▲환자가 아픈 곳 말하기 ▲신고자가 주소를 모를 때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방법 ▲의사로부터 의료지도 받고 응급처치하기 등의 내용을 담았다.

○ 제2편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미리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것!’은 ▲의료지도 및 응급처치 방법 ▲구급차 길 안내 방법 ▲미리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물건들 등 119구급신고 후 신고자가 미리 해야 할 일들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 소방청 윤상기 119구급과장은 “119구급서비스 이용 상식을 널리 홍보하여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라고 밝혔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119구급과 소방위 김미선(☎ 044-205-76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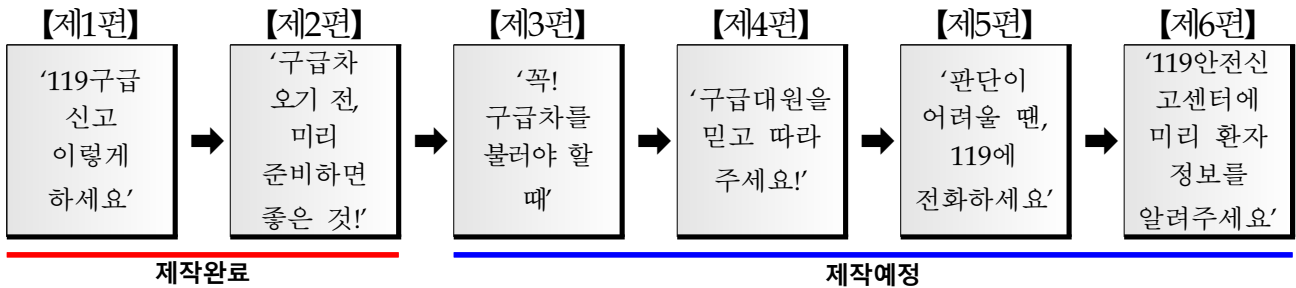
대국민 「119구급 서비스」 이용 안내문(홈페이지, SNS 등) 제작 추진

□ 추진 배경

- 연간 320여만명*이 이용하는 「119구급서비스」는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공공서비스이지만 이용상식을 모르는 경우가 많음
* 응급환자이송 179만명, 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지도·상담 141만명('16년)
- 구급신고 요령 등 사전에 알고 있으면 유익한 구급서비스 이용 상식을 안내문(디자인)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SNS, 팸플릿 등 활용 홍보

□ 제작 개요

- 기 간 : 2017. 6. 1. ~ 8. 30(3개월간)
- 제작형식 : 카드뉴스
- 구 성 : 총 6편



※ 현재 제1·2편 제작 완료, 소방청 및 각 시·도 소방관서 홈페이지 등에 게재 예정

□ 활용 방안

- 소방기관 홈페이지 게재, 유관기관 홈페이지 팝업 창 게시 협조
- Twitter, Facebook 등 SNS, 언론사 카드뉴스 등 모바일 매체 홍보
- 팸플릿(안내책자) 제작 배포(자치센터,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 등)





주소를 정확히 알려주세요.
2. 환자의 위치 알려주기



혹시 주소를 모르세요?
위치를 알 수 있는 TIP!

큰 건물의 상호 · 전화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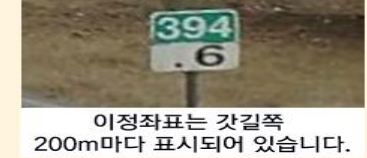
엘리베이터 고유번호



국가지점번호(산악위치)



고속도로 이정좌표



전봇대 번호



새주소 · 도로명



주소를 모를 때에는 근처에 있는 큰 건물의 상호 및 전화번호, 엘리베이터 고유번호, 국가지점번호(산악위치), 전봇대 번호, 고속도로 이정좌표 숫자를 불러주시고, 스마트폰 GPS는 꼭 켜주세요.

누가 어떤 이유로
어디가 아프는지, 또 의식과
호흡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3. 환자가 아픈 곳을 말하기



환자가 의식이 있고,
숨을 쉬고 있나요?
어느 부위가 아픈가요?



아빠가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면서 쓰러졌는데,
숨을 쉬지 않아요.



환자의 나이를 말하고,
평소에 앓고 있는 중요한 질병과
먹고 있는 약을 말해주세요.



4. 환자의 나이, 질병을 말하기



환자의 나이와
평소에 질병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65살이고, 평소에 심장병이
있어서 약을 드세요.



신고 장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의료지도 필요시 등
연락하는 경우가 있으니,
예비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5. 신고자의 이름과 예비 연락처 말하기

전화하신 분 이름과 통화 가능한
다른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제 이름은 000-이고,
이 전화 말고 통화 가능한
전화번호는 000-0000입니다.



구급차는 환자 있는 곳으로
가고 있으니, 전화를 끊지 말고
의료 지도를 받고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하면서 구급차를 기다립니다.



6. 의료지도 받고 응급처치하기

환자가 숨을 안 쉬면, 가슴
한가운데를 강하고 빠르게 누르세요.

네, 지금 누르고 있는데
몇 번 눌러야 하나요?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안전상식!② 119 구급차가 오기 전,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



의료지도 및 응급처치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침착하게 의료지도를 받고 응급처치를 실시해 주세요.

* 가까운 소방서에서 응급처치(심폐소생술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9 또는 관내 소방서에 문의하세요!

구급차 길 안내



응급처치 하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
구급차가 올만한 곳까지 나가서
안내를 해주면 도착이 빨라집니다.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물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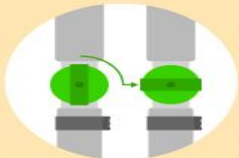
① 신분증, 여권,
의료보험증, 진찰권 등



② 돈(신용카드),
신발 등 생필품



③ 평소 복용중인 약



④ 집안 문단속 및
전기, 가스불 끄기



⑤ 신생아인 경우 우유,
기저귀, 모자보건수첩 등

구급대원이 도착하면 환자정보를 알려주세요



- ◎ 사고나 환자 상태가 나빠진 상황 설명
- ◎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의 상황 또는환자 상태 변화, 응급처치 내용
- ◎ 평소에 가지고 있는 지병, 병원 정보 및 복용중인 약 등